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8호 현대불교 2007년 7월 25일(음력 6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법을 들으실 때에 설법 아닌 게 없지만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허술히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데 사 사람이 천둥 번개 쳤다니깐 귀머거리가 천둥 번개가 어디 있다고 고집을 부리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이요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을 방편으로 써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부함을 시켜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에는 쓰고 배우면서 공부했지만 지금은 쓰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생각을 하고 그것도 더불어 같이 한생각을 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서 탐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 자체가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에 이 사대(四大)와 세상, 오온(五蘊)이 다 공(空)한 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향(慧香), 해탈향(解脱香), 해탈지견향(解脱知見香), 이 뜻이 이미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부처님 앞에 정성들이는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면 우리 스님네들만 계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스님네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지 스님네들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한다면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정도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일체 만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활면에서 있어서 모든 것을 한생각 누우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죠. 가정에서나 내 몸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이 계율에 어긋난 살림살이라면 그 살림살이는 벌써 어느 한 구석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들 말씀을 하실 때에 끄트머리에 꼭 다 향, 향, 향, 향 했습니다. 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 한지 아십니까? '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데에 쓰는 것이 '향'이냐?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만이 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 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을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음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종합해서 일체 만법을 행하는 데에, 마음 쓰는 데에, 뜻을 행하는 데에, 뜻과 행과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행의 계율이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향' 한 것입니다.

'정향'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대와 오온이 전부 공한 줄을 알았다면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며 일체 만법의 행을 하며 일체 만법의 눈을 뜨고 빛을 보며 또 일체 만법의 염파를 들으며, 또는 우리가 몸을 움직거리면서 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며, 뜻을 가지는 모두를 겸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주인공 자체, 그 자신의 실상, 근본을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일임해서 맡기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해서 '정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긴 거지 나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바탕인 나의 주인공의 그 뜻을 가지고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면서 활용을 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모든 것이 공했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고 믿고, 거기서 전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오관을 통한 감각, 이것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하는 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해향' 했습니다. '해향'이라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지각을 한데 합쳐서 마음 근본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안팎으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고 능동적이게 마음을 쓰게 뒷받침을, 정향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해향' 한 것입니다.

'해탈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로부터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고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진화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인간이지만은 아직 50%가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고 맡기고 믿고 지켜보면서, 모든 것은 이 허수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인공에 나눠 이겁니다. 놓게 되면 나중에 억겁에 걸린 업의 과보라든가 억겁에 대한 죄업이 얼기설기 다 묶어진 것을 풀게 하는 것이 '해탈향'입니다. 그러니깐 억겁의 업과가 풀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향'의 뜻입니다.

그러면 '해탈지견향'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모두를 놓고 항상 밝아서 유(有)의 법, 무(無)의 법이 같이 밝아서, 내 생명의 근원과 마음내는 것이 항상 밝

니까, 이 육신도 밝게 행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다 밝아서 통달하고 보니까 무엇인들 거기에 걸릴 바가 있겠습니까? 걸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無)'자 화두를 가졌다 또 '이 뭐고?' 화두를 가졌다, 어떤 화두를 가졌는지 간에 그 화두는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공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낸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발견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깐요. 이 바탕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화두라고 생각하고 근본에 바로 들어대라. 이것이 근본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바탕이 될 수 있는, 이게 제사 지낼 때 위에 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부처님을 조성해왔을 때에는 '바로 저 부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요, 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니.'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셔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화두 든 것은, 우리의 이름이 벌써 화두로 정해졌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화두로 정해졌는데 바깥에 또 화두를 쥐고 있으니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 쪽쪽쪽쪽 빠집니다. 그런데 기계 한 귀퉁이가 고장이 나가지고선 만약에 막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뒤따라 나오는 것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생활도 바로 놓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을, 밀려서 부딪치고 부딪치면서 사람이 고를 겪고 그러지 않을 것을 자꾸 만들어서 사업 자득으로 생활을 해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를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보십시오. 이 우주 전체가 말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금강자석이라고 한다면 금강자석에 의해서 그 빠른 힘이 있어서 물이 이 지구 바깥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석과 같은 힘은 누가 가져왔느냐? 바로 우리를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별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능동적이고 활용적이고 움직여질 수 있는 그 무한의 능력을 가진 생명성입니다. 그 생명성이 떠다니다 떠다니다가 한데 모아진 것이 바로 지구덩어리라고 본다면 그 능력에 의해서 금강자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자석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자석에 의해서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내 앞에 닦혔을 때는 체가 없는 마음이 마음을 동작을 시키는데 이것을 다 놓고 돌아간다면 자석에서 붙을 건 붙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해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석이 떨어질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이 금강자석이라는 것은 물건인 쇠자석이 아니라 체가 없는 자석이라서 예를 들어 형질 쪼갠다 붙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 쪼갠다 붙을 수 있는 쪼갠다 지 다 거기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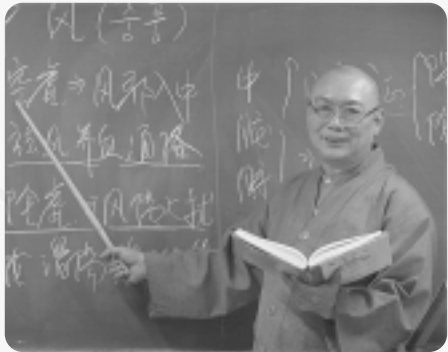
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보십시오. 그 자석에다가 쇠를 하나 붙여보면 그 쇠붙인 데가 또 자석이 돼서 다른 게 또 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능동적이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이 금강자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믿어 하고 업신여기고, 바깥으로 신을 찾아서 '아이고 저 위대한 신을 내가 찾

18면으로 계속

## 2007년 동양의학방송국 여름특강 개설

동양의학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 동양의학방송국 여름방학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한약처방에 대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 강좌기간 : 2007년 8월 6일 ~ 8월 30일 까지
  - 강좌시간 :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4시
  - 강좌내용 : 각4시간 (중의방제학-방약합편: 한약처방학)
  - 강사 : 동양의학방송국 대표강사(덕운스님)
  - 장소 : 동양의학방송국
  - 문의전화 : 02)3487-2311
  - 보시금 : 30만원
  - 접수기간 : 2007년 7월 25일 ~ 31일
- ※ 장소관개로 인해 선착순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동양 의학 방송국 (www.dytv.co.kr)

## 여래심지요문통가경 如來心地要門楞伽經 강의 안내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술전문강당을 졸업한 1기-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禪敎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본 선교연구모임에서는 금번 선종의 중국 초조인 달마대사께서 2주 헤가대사께 心印을 전해준 적에 함께 전수한 능가경 4권을 총정리한 당나라 화엄종주 현수 법장스님께서 능가현의 깊은 뜻을 밝힌 경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강백인 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포교와 자기원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시간 : 매일 3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실 강당
- 수강료 : 6개월 25만원
- 자격 : (가) 비구, 비구니 - 법납 15년 이상, 불교서술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서술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출가자 - 수행이력서 1통, 반명함사진 2매 재가자 - 이력서,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2매, 신도증 사본 1매
- 접수기간 : 2007년 7월 13일 - 9월 7일까지
- 입금처 : 국민은행 429102-04-031256 예금주 최재동
- 문의 및 접수처 : 02)735-1053 / 핸드폰 018-242-7070, 011-497-8018
- 서류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불교서술전문강당 동문회 禪敎연구모임 운영위원장 법경 합장